데스크 시각

문화광주는 KTX를 타고

박 진 현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홍콩 미술계의 '큰 손' 캐서린 콰이(캐서린 콰이 & 펀 힌 갤러리 대표)는 전속 작가인 광주 출신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씨에게 종종 '서울행'을 제안한다. 국제 미술계의 러브콜이 줄을 잇는 이씨의 해외활동을 위해선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광주보다는 서울에서 작업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녀의 '서울타령'은 2년 전 광주를 방문한 이후 더욱 집요해졌다. 이씨의 고향과 작업실을 둘러보기 위해 광주에 오기까지 긴 시간을 '길 위에서' 보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홍콩에서 인천공항까지 3시간이 소요된 데 비해 인천에서 광주까지 5시간이 걸린 것이다.

당시 그녀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 작가가 그동안 수차례 홍콩과 광주를 오가느라 엄청 힘들었을 것 같다"며 "작업실을 서울로 옮기든지, KTX가 빨리 개통되든지 뭔가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웃으며 말했다.

앞으로 20여 일 후면 이런 불평(?)도 '먼 나라 이야기'가 될 것 같다. 다음달 2일부터 KTX호남선 완전 개통으로 광주구간(서울 용산역~광주 송정역)을 1시간30분대에 끊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때문이다.

'관광의 별'로 떠오른 대구

당장 넉 달 앞으로 다가온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를 필두로 9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2015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7080 충장축제 등 빅 이벤트들이 줄줄이 이어지는 광주로서는 호재 중의 호재가 아닐 수 없다.

일각에선 KTX 개통이 수도권으로의 블랙홀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있긴 하나 꼭 그렇지도 않다. 차별화된 콘텐츠를 갖추면 서울이건 부산이건, 관광객들을 광주로 끌어들이는 빨대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KTX 개통 이후 '관광의 별'로 떠오른 대구시가 그런 경우다. 한국관광공사(2001·2004년)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3년)이 발표한 국민여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KTX 개통 이전인 2001년 대구를 찾은 관광객은 118만 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개통 첫해인 2004년 164만 명으로 증가한 이후 2014년에는 420만 명을 '찍는 등' 10년 만에 3배 이상의 관광객을 불러 들였다. KTX 개통이 관광대구의 원동력이 된 셈이다.

그렇다고 KTX가 '만능키'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대구가 '관광객 420만 명' 유치라는 화려한 성적을 거두기까지에는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들이 있었다. 대구 국제오페라 축제, 대구 국제뮤지컬 페스티벌, 대구사진비엔날레, 대구근대골목투어, 대구치맥(치킨+맥주)페스티벌 등이다.

이 가운데 오페라 축제는 대구시가 KTX 개통을 겨냥해 2003년 오페라 전용극장인 오페라 하우스 개관과 함께 시작한 아시아 최초의 페스티벌로 매년 30여만 명이 다녀간다. 특히 일제 강점기 대구 출신의 최계복, 구왕삼, 안월산 등 한국사진계의 거장들을 재조명하기 위해 창설한 사진비엔날레와 대구에서 시작한 치킨 프랜차이즈와 닭가공산업을 홍보하기 위한 치맥 페스티벌은 열혈팬들을 불러 모으며 '전국구 축제'로 자리 잡았다.

킬러콘텐츠로 특수 노려야

대구시립미술관 역시 KTX의 수혜자 가운데 하나다. 2013년 지방미술관으로는 최초로 일본작가 쿠사마 야요이전을 개최해 전국 각지에서 33만 명의 관람객을 동원, 국내 미술계를 놀라게 했다. 지난해에는 중국현대미술 거장 장샤오강 회고전, '대구미술 : 기억의 풍경 전' 등을 연이어 흥행시키며 개관 3년 7개월 만에 누적관람객 100만 명을 돌파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믿고 보는 미술관'이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대구미술관 전시 개막식에는 외지 관람객, 미술전문 월간지 기자들도 대거 참석한다.

KTX 개통은 아시아의 문화수도를 꿈꾸는 광주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기회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는' 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문예회관 등 지역 문화예술기관들의 프로그램은 희망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특히 올해 시립미술관이 야심차게 내놓은 북유럽 디자인전과 배병우 사진전, 광주문예회관의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푸르른 날에' 등은 많은 아쉬움을 준다. 이미 서울이나 타지역에서 선보인 '재탕, 삼탕 콘텐츠'로는 문화수도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다.

이제 싫든 좋든 광주는 KTX 개통으로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된다. '메이드인 광주' 콘텐츠가 매력을 주지 못한다면 외지 관람객은커녕 오히려 '안방'의 문화소비자들을 타지에 고스란히 뺏길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지역의 문화자원과 정체성을 살린 킬러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KTX 개통이 희망이 아닌 재앙으로 변하는 건 순간이다. 기회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

/jhpark@kwangju.co.kr

특별기고

지방자치 20년, 국민들에게 길을 묻다

조 충 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순천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월22~23일 민선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하여 '한국지방신문협회'와 공동으로 전국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를 잘 살펴보면 앞으로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우선, 우리 사회가 중앙에 너무 치우쳐 있고 지방이 소외되고 있다고 하는 '지방소외론'에 대해 77.4%가 공감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국민 10명중 8명이 현재 중앙과 지방간 기형적 재원과 권한의 불균형으로 지역에서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 48.2%가 동의한다고 응답한 결과와도 연관이 된다. 헌법에 지방분권이라는 국가운영 대원칙을 세워서라도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최근 논란이 되었던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을 폐지해 구청장과 군수를 주민이 직접 뽑지 않고 시장이 임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1%즉, 10명중 7명이 주민참여 제약과 지역특성을 살리기 어려우므로 반대한다고 대답했다. 이는 효율성 증대와 예산절감을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 24.8%의 약 3배 가까이 높은 찬성률이다. 국민들은 효율성과 획일성보다는 민주성과 참여, 다양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자치구·군의 폐지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그리고 현재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는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31.7%), '주민들의 참여기회 확대'(27.2%),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25.5%) 순으로 응답했다. 국민 역시 현재 지방자치의 가장 큰 문제와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지방재정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시군구의 과중한 복지비부담으로 인한 '복지디폴트' 선언으로 국민들도 지방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정당의 지방정치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정당공천제 폐지와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끌어낼 수 있도록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특히,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7.6%, 10명 중 7명이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그 이유로는 지역정치의 중앙정치 종속화 방지(41.4%), 공천헌금 등 공천비리 차단(30.0%) 등을 들었다. 지난 대선 때도 국민의 70~80%가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의 배제를 지지하였고 당시 여야의 대통령후보가 모두 이를 공약하였다. 이 정도가 되면 선거법을 고쳐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정당공천배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논리를 급조하여 공약을 입법화 직전에 번복하였다. 실종된 지방정치를 복원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은 지방자치가 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4개 분야별 기여도에 대한 조사 결과, 특색있는 지역발전(44.0%)에 대해 기여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 제고(43.4%),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36.4%),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33.3%) 순으로 나타났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이나 주민복리 증진, 주민참여 등 지방자치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져 주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들은 여러 지방자치 현안에 대해 지방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있었고 따끔한 충고도 아끼지 않았다. 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도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의 희망도 앞으로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길도 국민들에게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도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더 노력하고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공감하고 소통해야 한다. 민선자치 20년을 맞이하는 2015년 올해가 앞으로 새로운 지방자치 2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은펜칼럼

광주 동구, 남구 양림동을 가보라

박 홍 근
양림플랫폼 대표·건축사

요즘 도시정책의 화두는 재생이다. 개발위주였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존의 낙후한 시설을 재정비하고 보완하여, 시간의 연속성과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개발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동안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낙후지역이 새롭게 관심지역으로 각광을 받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2014년부터 전국 13곳을 도시재생 선도구역으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중이다. 달동네가 아니더라도 활력이 떨어진 상업지역이나 노후 산업단지, 역세권 등이 재생사업 대상지다.

광주 동구도 그중 하나다. 상업지구인 충장동·서석동·금동 일부와 주거지역인 산수동·동명동·지산동 일부지역이 해당된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2017년까지 4년간 218억원이 투입된다. 주민, 의회,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추진위원회구성을 통해 기본계획을 준비 중이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보고서의 비전, 목표, 전략은 잘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다음이 늘 문제다. 실행계획과 실천에서 많은 것을 놓친다. 이의 교훈은 남구 양림동에서 찾아보라 하고 싶다.

남구 양림동의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하여 2015년이면 거의 마무리 된다. 총 예산은 307억원이 투입되었다. 그곳에 가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성공사례보다는 실패사례에서 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동구재생사업이 4년 후엔 선진사례가 되길 기대하면서 양림동의 아쉬움에 대해 필자의 몇 가지 물음을 나누고자 한다.

첫째, 방향 설정은 어떠했는가? 지역의 인적·물적·인문 자산을 기반으로 그 곳만의 독특함을 강화하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했는가. 관이 주도적으로 하고 민간은 따라만 갔는가 아니면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

둘째, 콘트롤 타워는 있었는가? 넓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많은 사업을 진행하려면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간·사업간·이해당사자들 간 조정할 조직이 있어야 한다. 이런 조직은 있었는가. 누가 무슨 역할을 했는가. 또한 제대로 된 주민조직과 전문가조직들이 함께 했는가.

셋째, 지속성은 있었는가? 우선 사람의 지속성이다. 콘트롤 타워도 없는 상황에서 담당공무원이 1년이나, 1년 반이면 바뀐다. 사람이 다르니 생각이 다르고 결과도 변질된다. 책임질 사람도 없다. 사업선정은 단발성이나, 목소리 큰 극히 일부의 민원해결용 사업 때문에 지역에 지속적으로 가치를 높일 사업은 뒷전이지 되지 않았는가.

넷째, 어떤 효과가 있는가? 마을, 집주인, 세입자, 이용자 등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준 요소들은 무엇인가. 혹시 기존 그곳만의 가치를 돈을 투입해 훼손한 것은 있지 않는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사업으로 하고, 실질적이지만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는 사업은 안한다는 뒷담화가 사실인가.

마지막은 똑같은 실패를 계속할 것인가? 7년여의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 좋은 점, 잘못된 점을 정리하여 교훈으로 삼아야한다. 계속된 같은 행정의 실패는 후손에게 죄를 짓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현재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사업을 진행하면서 단편적 사업계획으로 가치 있는 장소와 공간들을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는지 의문이다.

에디슨은 말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 영감을 강조한것인가?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인가? 이는 '1%의 영감'이 없다면 '99%의 노력'은 아무 소용없다는 취지라고 한다. 아무리 노력을 했다하더라도 방향이 잘못 되었다면 그 노력의 가치는 반감되거나, 무의미하거나, 어떤 경우엔 해를 끼친다. 영감은 비전이며 방향이다. 방향을 잘못잡고 속도를 위한 노력만 한다면 이는 자멸이다. 혹시 지자체들이 그들장(長)의 왜곡된 생각이나, 편협 된 사고로 지역을 잘못 몰고 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되돌아봐야 한다.

광주 동구는 남구 양림동에서 교훈을 얻어 성공적인 재생사업을 해야 한다. 남구 양림동은 더 이상 마을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우리 후손에게 온전히 남길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지금 진행 중이다. 현 시점에서 기관장의 지혜와 안목, 실무자의 간절함, 시민들의 각성과 참여가 필요하다.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社 說

정부, U대회 남북단일팀 반대 이해 안 된다

정부는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관련, 남북 단일팀 구성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설명과 이유 없이 막연하게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정부는 광주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지만 단일팀 구성 관련해선 남북관계 및 국민정서와의 조화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향후 북한이 단일팀 구성을 요청해 올 경우에 대해서도 "상황을 가정해서 말하진 않겠지만 앞의 사유로 인해 단일팀 구성이 적절치 않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북한 대표팀의 경비 지원 문제에 대해선 "국제 관례와 선례 등을 고려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 단일팀 구성이 적절치 않다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이해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남북관계 및 국민정서와의 조화 등을 내세웠지만 이는 정치적 해석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물론 북한의 핵문제를 비롯한 전제조건을 단 남북대화, 6자회담 표류, 미국의 대북 강경책 등 국내외 여러 걸림돌이 놓여있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단일팀 구성이 남북 화해의 큰 물꼬를 틀 수 있으며 이를 통해 6자회담 재개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또한 국민 간의 이념적 갈등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번 광주U대회에 국제종합경기 사상 최초로 남북 단일팀이 참가하면 세계의 주시 속에 남북 간 새로운 국면이 열릴 게 분명하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 당사국도 박수를 보낼 것이다. 정부가 남북 단일팀 구성에 수동이 아닌 능동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이는 광주U대회의 성공 개최를 담보하는 일이기도 하다.

광주 '빛고을' 걸맞게 야관경관 정비해야

광주는 '빛(光)의 도시(州)'다. 지명의 한자 풀이 그대로 빛이 살아 숨 쉬는 고을이다. 하지만 밤이면 길거리는 유흥업소와 모텔에서 내뿜는 네온사인 불빛만 반짝일 뿐 전체적으로 어둡고 음산하다. 광주시가 빛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광주를 찾은 외지인들은 빛의 도시 명성에 걸맞는 멋진 야간경관을 기대했다가 모텔과 유흥업소의 간판 불빛만 엉켜 있는 야경을 보고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시민들도 인구 150만 도시의 야경 수준치고는 한심하다는 지적이다.

광산업, 에너지 밸리 등 빛의 특화도시가 무색할 지경이다. 그런데도 광주시는 에너지 절약 등을 이유로 야경 조성에 손을 놓고 있다. 시는 지난 2013년 야간경관 조명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폐지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 사실상 야경 조명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UN이 정한 '세계 빛의 해'로서 전국적으로 빛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와 기념행사 등이 열리고 있지만 정작 광주에선 이렇다할 행사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서울시와 인천·부산시 등 대부분의 도시들은 야간경관 개선 사업에 적극적이다. LED저감장치를 활용하거나 지역 특색에 맞는 야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또 국제행사 홍보 등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야경 조성이 가능토록 돼 있는 신재생 에너지 관리법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서울시가 주요 건축물과 문화재, 부산시가 부산대교와 광안대교 등을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 야간 관광 명소가 된 게 대표적인 예이다.

광주시가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 따라 야경 정비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지금이라도 빛의 도시, 문화의 도시에 걸맞게 야간경관 개선작업에 나서야 한다. 조례를 다시 제정해 오히려 활성화시켜야 한다. 아니라면 말뿐인, 빛바랜 빛고을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無 等 鼓

꽃샘추위

전한(前漢)시대 원제(元帝)에겐 왕소군이란 후궁이 있었다. 서시, 초선, 양귀비와 함께 중국의 4대 미녀로 꼽히지만 원제는 왕소군의 미색을 미처 알아보지 못했다.

어느 날 왕궁에서 흉노족에게 보낼 후궁을 선발하게 됐다. 걸핏하면 쳐들어오는 흉노족을 달래기 위한 일종의 화친정책이었다. 당시에는 황제가 후궁의 얼굴을 일일이 알 수 없어 화공이 그린 그림으로 판단했다. 다른 후궁들은 화공에게 뇌물을 바쳐 황제의 눈에 들었지만 왕소군은 뇌물을 바치지 않아 추하게 그려졌고 결국 오랑캐의 아내로 뽑히게 됐다.

왕소군이 흉노로 떠날 즈음 절세미인 왕소군을 처음 본 원제는 가슴을 쳤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고 대신 화공의 목을 치는 것으로 분을 삭였다.

당나라 시인 동방규는 '소군원'이란 시에서 왕소군이 오랑캐의 왕비가 된 것을 개탄해 "호지무화초 춘래불사춘(胡地無花草 春來不似春)"이라고 읊었다. "오랑캐 땅에는 꽃이 없으니 봄이 와도 봄답지 않다"는 의미로 흉노족 왕에게 끌려가는 왕소군의 가련한 처지를 빗댄 표현이다. 흔히 '춘래불사춘'이라고 줄여 부르는 일화다.

춘래불사춘처럼 봄은 쉬이 오지 않는다. 더디 오는 봄을 백거이는 낙양(洛陽)의 위왕지란 연못을 보고 "꽃이 추위에 늦게 피니 새도 게을리 운다/ 고삐 푼 말에 올라 한가히 거닐다 보니 해가 저무네/ 오지않는 봄을 찾는 심사 어디에 의지할까"라고 아쉬워 했다.

당나라 방랑시인 우무릉의 시 '권주(勸酒)'에서는 꽃을 시샘하는 자연의 이치를 통해 인생의 의미를 깨다를 수 있다.

'그대에게 금빛 술잔 권하니/ 가득 채운 술 사양 마시게/ 꽃피면 비바람 많은 법이고/ 세상살이 이별로 가득 차 있네'. 꽃이 피려면 비바람을 겪듯이 인생도 이별의 아픔 속에서 성장하는 만큼 일희일비 말라는 시인의 인생관이 들리는 듯 하다.

올해 꽃샘추위는 8년만에 가장 추울 정도로 위세가 대단하다. 겨울 추위에는 살이 시리지만 봄 추위에는 뼈가 시린다는 말처럼 체감추위는 훨씬 크다. 하지만 아일랜드 속담처럼 '3월은 사자처럼 왔다가 양처럼 간다'. 자연의 이치는 거스를 수 없다.

/장필수 정치부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_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42 〈대표FAX 222-4918〉 사 회 부 2200-663 〈대표FAX 222-4267〉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96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